

# 합성수지제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 활용도 및 인식도 분석†

## Analysis on Consumer Use and Perception on Labeling of Cooking Utensils Made of Plastic and Glass

김명신 · 김효정 · 김미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장수생활과학연구소

**Kim, Myung-Shin · Kim, Hyochung · Kim, Meer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Human Counseling & Welfare, Inje University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onsumer perception and use on labeling of cooking utensils made of plastic and glass to get information about improving the label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05 adults in Seoul, Busan, Daegu, Daejeon, Incheon, and Gwangju.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dows V.14.0. Frequencies, t test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were carried out. Many respondents checked off 'precautions in use' more than any other notice when they purchased the cooking utensils made of plastic and glass. Respondents were dissatisfied with the letter size and intelligibility of foreign language on the labeling. Most respondents preferred 'tag' for most cooking utensils made of plastic and glass. In addition, on necessity of precautions for each category of plastic cooking utensils, frying pans, plastic baskets, plastic water buckets, plastic seasoning bottles, the frying pan showed the highest need for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Plastic cups and plastic containers showed the highest in 'whether utensils could be used in the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s', and plastic cutting board showed the highest in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In the case of cooking utensils made of glass, 'precaution on shock' was the highest for glass cups and mugs and 'whether utensils could be used in the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s' was the highest for glass pans, dishes and containers.

**Keywords** : cooking utensils made of plastic and glass, consumer use, consumer perception, labeling

### I. 서론

최근 식품용 기구와 관련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부 식품용 기구 원료의 위해성이 밝혀지면서 소

비자들은 이들을 사용하면서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년 6개월 간에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강화유리 냄비뚜껑 자파현상과 관련된 위해사

---

† 본 연구는 200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08072식품안064)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Corresponding author: Kim, Meera

Tel: 053-950-6233, Fax: 053-950-6229

E-mail: meerak@knu.ac.kr

레 60건을 분석한 결과 53건은 냄비에 음식을 넣고 조리하거나 물을 끓이는 등 조리 중에, 7건은 세척 후 보관 중에 발생했으며, 이러한 자과현상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는 1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강화유리 냄비 사용시 주의 필요”, 2009). 또한 가볍고 깨지지 않으며 값이 싸고 편리하여 부엌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중 멜라민 용기에서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일정시간 노출될 때 인체에 유해한 멜라민이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멜라민 그릇에 뜨거운 물 담아두면 멜라민 성분나와”, 2008).

한편 상품이나 용역을 식별하여 선택하고 구입해서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비활동은 상품-용역의 식별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별의 수단으로서 “표시”는 소비활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노영화, 2000).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국가법령정보센터, 2009),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상품-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구입하는 소비자와의 사이에 지식,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소비자가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품-용역에 관한 정보제공의 수단인 표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경희, 여정성, 1996).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용 기구에 대한 표시사항은 식품등의표시기준(제2009-78호)에 따라 업소명 및 소재지, 재질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등으로 재질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식품등의표시기준”, 2009).

그러나 식품용 기구와 관련된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소비자민원으로 본 피해사례”, 2008), 그동안 표시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식품표시나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것들이고(김옥선 외, 2005; 김효정, 김미라, 1997; 노영화, 2004; 노영화, 김인숙, 1999; 이강자, 이윤희, 2004; 이경옥, 김영숙, 2007; 이경희, 여정성, 1996; 이정원, 김동순, 2003; 임현슬, 김향숙, 1997; 장순옥, 2000; 주나미 외, 2005; 주나미 외, 2006), 식품용 기구의 표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식품용 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표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품용 기구는 합성수지제, 도자기제, 유리

제 등 다양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국내 유통 중인 가공 식품의 용기포장재 재질별 사용실태를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청(2007)에 의하면 합성수지제(71.5%), 유리제(10.6%), 금속제(10.0%), 종이제(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용 기구의 재질 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제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활용도 및 인식도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용 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라벨 표시사항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대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1월에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2009년 2월에 6대 도시의 인구비례에 따른 쿼터를 적용하여 주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모든 설문자료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본 연구자들이 설문문항을 직접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문항의 내용이 연구모형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원들 및 대학원생들을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에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월가계소득, 거주지역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 식품용 기구 구매 시 라벨 표시사항 확인정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 처리 방법,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의 실천정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평가,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 이해 용이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필요정도, 현행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식품용

기구의 품목별 라벨 방법의 선호도, 식품용 기구의 품목별 라벨 표시내용 요구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식품용 기구 구매 시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식품용 기구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라벨 표시사항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라벨 표시사항 중 품목명, 원재료명, 규격, 제조업소 및 연락처 등은 ‘품질표시 사항’으로, 소비자상담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은 ‘보상관련 표시사항’으로, 그리고 화기접근 주의, 전자레인지 사용여부, 식기 세척기 사용여부 등은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사항’으로 구분한 후, 응답자들에게 이들의 표시사항을 각각 어느 정도 확인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1점부터 ‘항상 확인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현행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서 보완되기 바라는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글자 크기를 더 크게’, ‘외국어를 한글로 표시’, ‘품질표시를 좀 더 자세하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도안으로 표시’ 중 택일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품용 기구의 라벨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플라스틱 바구니류, 플라스틱 물통류, 플라스틱 컵류, 플라스틱 양념통류, 플라스틱 보관용기류, 플라스틱 도마, 프라이팬류<sup>1)</sup>, 유리컵·유리잔, 유리냄비, 유리접시, 유리 보관용기류 등 각 기구별로 ‘태그’, ‘스티커’, ‘새김’, ‘속지나 띠지’, ‘포장 박스에 인쇄’, ‘별도의 용지나 책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택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식품용 기구의 품목별 라벨 표시내용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기구별로 어떤 주의사항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있는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활용도 및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chi^2$  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분석을 실시하였다.

1) 프라이팬은 불소수지 코팅이 되어있는 제품이 많아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에 포함시켰음.

## Ⅲ.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과 지역별로 인구비례쿼터를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령은 40대가 3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26.9%), 50대(21.6%), 60세 이상(13.7%)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45.7%, 부산 17.2%, 인천 12.5%, 대구 11.5%, 대전, 광주 각각 6.5%이었다(<표 1>). 학력은 고졸(53.3%), 대재 이상(32.9%), 중졸 이하(13.8%) 순이었으며, 월가계소득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3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7.7%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29세	32	6.3
	30~39세	136	26.9
	40~49세	159	31.5
	50~59세	109	21.6
	60세 이상	69	13.7
학력	중졸 이하	70	13.8
	고졸	269	53.3
	대재 이상	166	32.9
월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44	8.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0	27.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76	34.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1	16.0
	500만원 이상	64	12.7
거주지역	서울	231	45.7
	부산	87	17.2
	인천	63	12.5
	대구	58	11.5
	대전	33	6.5
	광주	33	6.5
계		505	100.0

### 2. 소비자의 라벨 활용도

#### 1) 식품용 기구 구매 시 라벨 표시사항 확인정도

식품용 기구 구매 시 라벨 표시사항을 얼마나 확인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의 평균값이 3.3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품질표시’(3.14점), ‘보상관련 표시’(2.89점)이었다. 즉, 소비자들은 식품용 기구를 구매할 때 사

〈표 2〉 식품용 기구 구매 시 라벨 표시사항 확인정도

항목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sup>1)</sup>	F value
품질 표시	연령	20~29세	3.13±.98 <sup>a</sup>	3.90**
		30~39세	3.21±1.04 <sup>a</sup>	
		40~49세	3.31±.97 <sup>a</sup>	
		50~59세	3.03±1.05 <sup>ab</sup>	
		60세 이상	2.77±1.05 <sup>b</sup>	
		중졸 이하	2.44±1.00 <sup>b</sup>	
고졸	3.16±.96 <sup>a</sup>			
대계 이상	3.39±1.02 <sup>a</sup>			
보상관련 표시	연령	200만원 미만	2.64±.92 <sup>c</sup>	4.8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5±1.09 <sup>ab</sup>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7±1.04 <sup>b</sup>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26±.86 <sup>ab</sup>	
		500만원 이상	3.47±1.01 <sup>a</sup>	
		전체 평균±표준편차 <sup>1)</sup>	3.14±1.03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연령	20~29세	2.94±1.08 <sup>a</sup>	3.01*
		30~39세	2.87±1.00 <sup>a</sup>	
		40~49세	3.03±.99 <sup>a</sup>	
		50~59세	2.92±1.10 <sup>a</sup>	
		60세 이상	2.52±.96 <sup>b</sup>	
		중졸 이하	2.43±1.04 <sup>b</sup>	
고졸	2.89±.98 <sup>a</sup>			
대계 이상	3.07±1.05 <sup>a</sup>			
품질 표시	연령	20~29세	3.38±1.04 <sup>a</sup>	4.81**
		30~39세	3.38±1.03 <sup>a</sup>	
		40~49세	3.49±.96 <sup>a</sup>	
		50~59세	3.25±1.08 <sup>a</sup>	
		60세 이상	2.87±1.06 <sup>b</sup>	
		중졸 이하	2.71±1.07 <sup>b</sup>	
고졸	3.36±.99 <sup>a</sup>			
대계 이상	3.50±.99 <sup>a</sup>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연령	200만원 미만	2.86±1.05 <sup>b</sup>	3.0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40±1.09 <sup>a</sup>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27±1.02 <sup>a</sup>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48±.85 <sup>a</sup>	
		500만원 이상	3.38±1.08 <sup>a</sup>	
		전체 평균±표준편차 <sup>1)</sup>	3.32±1.03	

\* $p < .05$ , \*\* $p < .01$ , \*\*\* $p < .001$ ;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결과로 한 종류의 변수에서 같은 문자는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음.

1) 1=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5=항상 확인한다

용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표시사항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학력에 따라 품질표시, 보상관련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확인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 품질표시, 보상관련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을 가장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표시와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확인정도는 월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월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 품질표시 및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을 가장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에 관한 선행연구들(김효정, 김미라, 1997; 임현슬, 김향숙, 1997; 장남수, 1997; 주나미 외, 2005)에서도 연령, 교육수준, 월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연령이 젊고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월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식품표시를 더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 2) 식품용 기구의 라벨 처리 방법

조사대상자들이 식품용 기구를 구매한 후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69.9%가 ‘한 번 읽어본 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6%는 ‘읽지 않고 바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5.0%가 ‘필요한 제품에 한해 선택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하였고, 1.4%는 ‘모든 라벨을 읽고 보관’, 1.2%는 ‘읽지는 않으나 그대로 보관’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 즉, 전체응답자의 92.5%가 식품용 기구의 라벨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p < .001$ ), 학력( $p < .001$ )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연령에서는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 번 읽어본 후 제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필요한 제품에 한해 선택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경우 ‘읽지 않고 바로 제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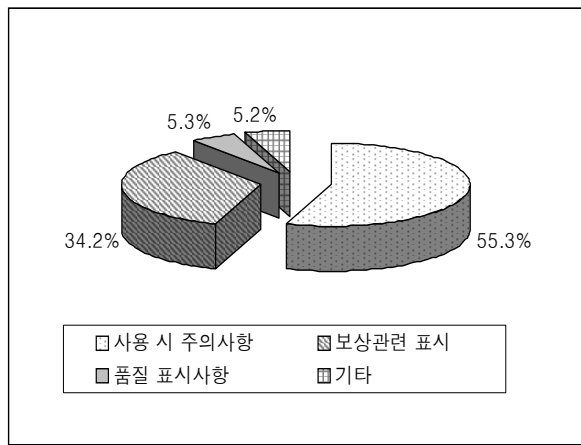
라벨을 보관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3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사용 시 주의사항’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상관련 표시’ 때문(34.2%), ‘품질 표시사항’ 때문(5.3%) 순이었다. 한편 라벨을 제거한다고 응답한 467명을 대상으로 라벨을 제거한 이유를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48.0%가 ‘불필요하므로’, 37.9%가 ‘제품사용에 불편을 가져와서’, 그리고 14.1%가 ‘라벨이 제품의 외관을 손상시켜서’로 나타났다([그림 2]).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일부 소비자들은 라벨을 읽어보지도 않고 제거하거나 또한 식품용 기구에 부착된 라벨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라벨은 식품용 기구 사용에 유용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라벨에 대한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용 기구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용 기구를 이용할 때 라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라벨의 형태나 부착위치에 대

〈표 3〉 식품용 기구의 라벨 처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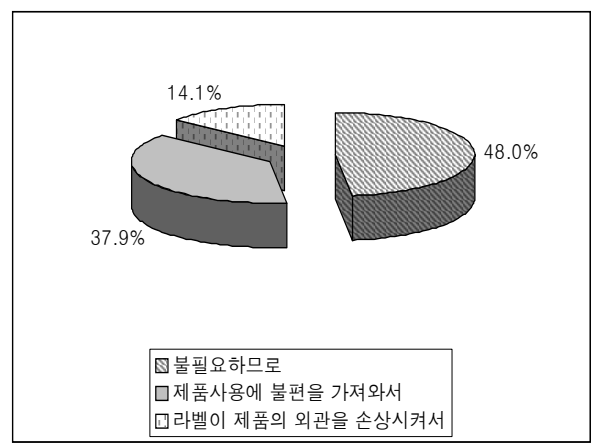
N(%)

변수	구분	읽지 않고 바로 제거	한번 읽어본 후 제거	필요한 제품에 한해 선택적으로 보관	모든 라벨을 읽고 보관	읽지는 않으나 그대로 보관	계	$\chi^2$ value
연령	20~29세	10(31.3)	16(50.0)	5(15.6)	0( .0)	1( 3.1)	32(100.0)	41.48***
	30~39세	29(21.3)	99(72.8)	5( 3.7)	2( 1.5)	1( .7)	136(100.0)	
	40~49세	18(11.3)	132(83.0)	6( 3.8)	2( 1.3)	1( .6)	159(100.0)	
	50~59세	32(29.4)	68(62.4)	7( 6.4)	1( .9)	1( .9)	109(100.0)	
	60세 이상	25(36.2)	38(55.1)	2( 2.9)	2( 2.9)	2( 2.9)	69(100.0)	
학력	중졸 이하	33(47.1)	31(44.3)	2( 2.9)	1( 1.4)	3( 4.3)	70(100.0)	37.73***
	고졸	50(18.6)	200(74.3)	15( 5.6)	3( 1.1)	1( .4)	269(100.0)	
	대졸 이상	31(18.7)	122(73.5)	8( 4.8)	3( 1.8)	2( 1.2)	166(100.0)	
계		114(22.6)	353(69.9)	25( 5.0)	7( 1.4)	6( 1.2)	505(100.0)	

\*\*\* $p < .001$



[그림 1] 식품용 기구의 라벨 보관 이유



[그림 2] 식품용 기구의 라벨 제거 이유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의 실천정도

식품용 기구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대로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점이 3.59점으로, 응답자들이 주의사항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정도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학력과 월가계소득에 따라 실천정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졸 이하, 고졸에 비해 대졸 이상인 경우( $p < .001$ ), 그리고 월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에 비해 500만원 이상인 경우( $p < .05$ ), 식품용 기구에 표시된 주의사항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문항에서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에서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월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의 확인을 가장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의 경우 라벨에 있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도 잘 하지 않고

〈표 4〉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의 실천정도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sup>1)</sup>	F value
학력	중졸 이하	3.34±.78 <sup>b</sup>	13.41***
	고졸	3.52±.75 <sup>b</sup>	
	대졸 이상	3.82±.67 <sup>a</sup>	
월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46±.73 <sup>b</sup>	2.6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54±.82 <sup>b</sup>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55±.79 <sup>b</sup>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68±.59 <sup>ab</sup>	
	500만원 이상	3.83±.61 <sup>a</sup>	
전체 평균±표준편차 <sup>1)</sup>		3.59±.75	

\* $p < .05$ , \*\*\* $p < .001$ ;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결과로 한 종류의 변수에서 같은 문자는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음.

1) 1=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5=항상 실천한다

또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따른 실천정도도 낮은 것으로 보였다.

### 3. 소비자의 라벨에 대한 인식도

#### 1)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평가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 있는 표시사항이 응답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식품용 기구를 바구니류, 물통류, 컵류, 양념통류, 보관용기류, 도마, 프라이팬류로 구분하여 품목별로 질의한 결과 최저 2.94점에서 최고 3.31점으로, 라벨의 정보제공 정도를 보통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품목별로는 프라이팬류(3.31점), 보관용기류(3.25점), 물통류(3.10점) 순으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바구니류(2.94점)에 대한 라벨 표시사항은 응답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적게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품목별 라벨 표시사항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식품용 기구의 품목별 라벨 표시사항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평가

구분	평균±표준편차 <sup>1)</sup>
바구니류	2.94±1.08
물통류	3.10±.92
컵류	3.03±.94
양념통류	3.02±.93
보관용기류	3.25±.94
도마	2.98±.99
프라이팬류	3.31±.93

<sup>1)</sup> 1=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5=많이 제공한다

#### 2)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 이해용이도

응답자들에게 식품용 기구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의 표시사항을 이해하기 쉬웠는지 질의한 결과, <표 6>과 같이 평균값이 3.54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연령( $p<.001$ ), 학력( $p<.001$ ), 월가계소득( $p<.05$ )에 따라 라벨 표시사항 이해용이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60세 이상, 학력이 중졸 이하, 월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라벨의 표시사항 이해용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연령이 많거나 학력과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라벨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 이경희, 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표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표 6>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 이해용이도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sup>1)</sup>	F value
연령	20~29세	3.44±.80 <sup>bc</sup>	6.24***
	30~39세	3.71±.59 <sup>a</sup>	
	40~49세	3.57±.67 <sup>ab</sup>	
	50~59세	3.51±.74 <sup>ab</sup>	
	60세 이상	3.22±.69 <sup>c</sup>	
학력	중졸 이하	3.17±.72 <sup>b</sup>	12.29***
	고졸	3.57±.68 <sup>a</sup>	
	대재 이상	3.64±.65 <sup>a</sup>	
월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21±.70 <sup>b</sup>	3.1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56±.69 <sup>a</sup>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56±.71 <sup>a</sup>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53±.61 <sup>a</sup>	
	500만원 이상	3.66±.70 <sup>a</sup>	
전체 평균±표준편차 <sup>1)</sup>		3.54±.69	

\* $p<.05$ , \*\*\* $p<.001$ ;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결과로 한 종류의 변수에서 같은 문자는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음.

<sup>1)</sup> 1=매우 이해하기 어려웠다, 5=매우 이해하기 쉬웠다

를 보여주었다.

#### 3)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 있는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최저 2.68점에서 최고 3.24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설명 내용'(3.24점), '부착위치'(3.03점), '라벨제공방법'(2.94점), '외국어 표기 이해도'(2.75점) '글자크기'(2.68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

구분	평균±표준편차 <sup>1)</sup>
사용설명 내용	3.24±.67
부착위치	3.03±.78
라벨제공방법(속지, 락지, 태그, 스티커 등)	2.94±.76
외국어 표기 이해도	2.75±.71
글자크기	2.68±.83

<sup>1)</sup>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라벨 표시사항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라벨의 글자크기는 연령( $p<.001$ ), 학력( $p<.001$ ), 월가계소득( $p<.001$ )에 따라 차이를 보여 (<표 8>), 연령이 40대 이하에 비해 50세 이상인 경우, 학력이 고졸 이상에 비해 중졸 이하인 경우, 월가계소득이 200만원 이상에 비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 $p<.001$ ), 학력( $p<.001$ ), 월가계소득( $p<.001$ )에 따라 외국어 표기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연령이 60세 이상, 학력은 중졸 이하, 월가계

〈표 8〉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

항목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sup>1)</sup>	F value
연령		20~29세	2.97±.74 <sup>a</sup>	13.95***
		30~39세	2.85±.80 <sup>a</sup>	
		40~49세	2.86±.82 <sup>a</sup>	
		50~59세	2.42±.76 <sup>b</sup>	
		60세 이상	2.19±.81 <sup>b</sup>	
글자 크기	학력	중졸 이하	2.36±.95 <sup>b</sup>	7.77***
		고졸	2.67±.82 <sup>a</sup>	
		대재 이상	2.82±.77 <sup>a</sup>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16±.91 <sup>b</sup>	5.2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69±.85 <sup>a</sup>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79±.83 <sup>a</sup>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70±.77 <sup>a</sup>	
		500만원 이상	2.64±.72 <sup>a</sup>	
연령		20~29세	2.81±.69 <sup>a</sup>	6.31***
		30~39세	2.84±.70 <sup>a</sup>	
		40~49세	2.86±.65 <sup>a</sup>	
		50~59세	2.70±.71 <sup>a</sup>	
		60세 이상	2.39±.73 <sup>b</sup>	
외국어 표기 이해도	학력	중졸 이하	2.40±.79 <sup>c</sup>	20.86***
		고졸	2.69±.67 <sup>b</sup>	
		대재 이상	2.99±.65 <sup>a</sup>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32±.74 <sup>d</sup>	10.8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58±.74 <sup>c</sup>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88±.70 <sup>ab</sup>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0±.55 <sup>a</sup>	
		500만원 이상	2.77±.61 <sup>bc</sup>	

\*\*\* $p < .001$ ;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결과로 한 종류의 변수에서 같은 문자는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음.

1)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외국어 표기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앞의 문항에서 연령이 많거나 학력 및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라벨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았는데, 본 문항의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이는 주로 라벨이 작은 글씨나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필요정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 표시되는 제품명, 재질, 사용온도, 원산지, 제조업소 및 연락처, 판매원 및 연락처, 규격, 제조년월일, 품질보증기간, 교환·환불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상담실, 사용 시 주의사항 등 13개 항목 각각에 대해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필요정도가 가장 높았고(4.45점), 그 다음으로는 ‘교환·환불여부’(4.37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4.23점), ‘품질보증기간’(4.22점) 순이었다(〈표 9〉). 한편 ‘제품명’에 대한 필요정도가 3.66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

음으로는 ‘판매원 및 연락처’(3.71점), ‘규격’(3.80점) 순으로 낮았으나, 이들도 3.6점을 모두 넘어 응답자들이 대체로 모든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식품용 기구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정도에서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라벨 표시에 있어서 사용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필요정도

표시사항	평균±표준편차 <sup>1)</sup>
사용 시 주의사항	4.45±.68
교환·환불 여부	4.37±.6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23±.76
품질보증기간	4.22±.76
사용온도(내열, 내냉온도)	4.21±.80
원산지	4.20±.65
재질	4.15±.68
소비자상담실	4.07±.74
제조업소 및 연락처	4.04±.75
제조년월일(수입품의 경우 수입년월일)	3.94±.77
규격(용량 및 크기)	3.80±.78
판매원 및 연락처	3.71±.89
제품명	3.66±.75

1) 1=전혀 불필요, 5=매우 필요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질의 필요정도는 <표 10>과 같이, 응답자의 학력( $p < .01$ ), 월가계소득( $p < .001$ )에 따라 차이를 보여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이상, 월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질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력( $p < .05$ )에 따라 품

〈표 10〉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필요정도

항목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sup>1)</sup>	F value
재질	학력	중졸 이하	3.90±.68 <sup>b</sup>	5.97**
		고졸	4.18±.68 <sup>a</sup>	
		대재 이상	4.22±.69 <sup>a</sup>	
		200만원 미만	3.82±.76 <sup>c</sup>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20±.69 <sup>ab</sup>	
품질보증기간	학력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7±.63 <sup>b</sup>	5.4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27±.73 <sup>ab</sup>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34±.57 <sup>a</sup>	
		500만원 이상	4.34±.57 <sup>a</sup>	
		중졸 이하	4.03±.87 <sup>b</sup>	
품질보증기간	학력	고졸	4.22±.73 <sup>a</sup>	3.22*
		대재 이상	4.30±.74 <sup>a</sup>	

\* $p < .05$ , \*\* $p < .01$ , \*\*\* $p < .001$ ;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결과로 한 종류의 변수에서 같은 문자는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음.

1) 1=전혀 불필요, 5=매우 필요

질보증기간 표시의 필요정도에 차이를 보여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이상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표시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5) 현행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현행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글자 크기를 더 크게’(27.5%)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24.6%), ‘품질표시를 좀 더 자세하게’(24.2%)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조사대상자의 연령( $p<.001$ ), 학력( $p<.001$ ), 월가계소득( $p<.05$ )에 따라 보완되어야 할 점의 응답비율에 차이를 보여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학력은 중졸 이하인 경우, 월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글자크기를 더 크게’를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의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 있는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에서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월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의 경우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 비해 이를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6) 식품용 기구의 품목별 라벨 방법의 선호도

식품용 기구의 품목별 라벨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이 응답자들은 플라스틱 보관용

기류 및 유리 보관용기류를 제외한 식품용 기구에 대해서는 ‘제품에 연결된 태그’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한편 플라스틱 보관용기류 및 유리 보관용기류는 ‘제품의 속지나 띠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제품에 연결된 태그, 속지나 띠지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고 보관도 쉽게 할 수 있으며, 기구의 보관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식품용 기구의 품목별 라벨 표시내용 요구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서 어떤 주의사항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 기구별로 있는대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 결과, <표 13>과 같이 플라스틱 바구니류, 플라스틱 물통류, 플라스틱 컵류, 플라스틱 양념통류, 플라스틱 보관용기류의 경우에는 ‘화기접근주의’, ‘전자레인지 사용 여부 및 주의사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플라스틱 도마의 경우에는 ‘사용 전 세척사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프라이팬류의 경우에는 ‘화기접근주의’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전자레인지 사용여부 및 주의사항’과 ‘충격주의’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14>). 합성수지제의 경우 대부분 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기접근주의에 대한 표시사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즘 가정에서 전자레인지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표시사항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1> 현행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N(%)

변수	구분	글자 크기를 더 크게	외국어를 한글로 표시	품질표시를 좀 더 자세하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도안으로 표시	계	$\chi^2$ value
연령	20~29세	3( 9.4)	1( 3.1)	10(31.3)	3( 9.4)	10(31.3)	2( 6.3)	3( 9.4)	32(100.0)	85.63***
	30~39세	21(15.4)	13( 9.6)	37(27.2)	15(11.0)	42(30.9)	7( 5.1)	1( .7)	136(100.0)	
	40~49세	27(17.0)	13( 8.2)	47(29.6)	16(10.1)	42(26.4)	7( 4.4)	7( 4.4)	159(100.0)	
	50~59세	50(45.9)	3( 2.8)	18(16.5)	7( 6.4)	24(22.0)	4( 3.7)	3( 2.8)	109(100.0)	
	60세 이상	38(55.1)	7(10.1)	10(14.5)	4( 5.8)	6( 8.7)	3( 4.3)	1( 1.4)	69(100.0)	
학력	중졸 이하	38(54.3)	6( 8.6)	8(11.4)	7(10.0)	6( 8.6)	4( 5.7)	1( 1.4)	70(100.0)	48.12***
	고졸	72(26.8)	21( 7.8)	59(21.9)	25( 9.3)	68(25.3)	14( 5.2)	10( 3.7)	269(100.0)	
	대계 이상	29(17.5)	10( 6.0)	55(33.1)	13( 7.8)	50(30.1)	5( 3.0)	4( 2.4)	166(100.0)	
월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1(47.7)	8(18.2)	5(11.4)	1( 2.3)	8(18.2)	1( 2.3)	0( .0)	44(100.0)	42.3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9(20.7)	15(10.7)	36(25.7)	14(10.0)	33(23.6)	11( 7.9)	2( 1.4)	140(1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3(24.4)	10( 5.7)	43(24.4)	18(10.2)	50(28.4)	6( 3.4)	6( 3.4)	176(100.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6(32.1)	2( 2.5)	22(27.2)	6( 7.4)	19(23.5)	2( 2.5)	4( 4.9)	81(100.0)	
	500만원 이상	20(31.3)	2( 3.1)	16(25.0)	6( 9.4)	14(21.9)	3( 4.7)	3( 4.7)	64(100.0)	
계		139(27.5)	37( 7.3)	122(24.2)	45( 8.9)	124(24.6)	23( 4.6)	15( 3.0)	505(100.0)	

\* $p<.05$ , \*\*\* $p<.001$



〈표 12〉 품목별 라벨 방법의 선호도

품목		태그	스티커	새김	속지나 띠지	포장 박스에 인쇄	별도의 용지나 책자	계
플라스틱 바구니류	순위	1	2	3	4	5	6	
	N(%)	190(37.6)	155(30.7)	56(11.1)	52(10.3)	31( 6.1)	21( 4.2)	505(100.0)
플라스틱 물통류	순위	1	3	4	2	5	6	
	N(%)	156(30.9)	108(21.4)	73(14.5)	111(22.0)	37( 7.3)	20( 4.0)	505(100.0)
플라스틱 컵류	순위	1	2	4	3	5	6	
	N(%)	161(31.9)	134(26.5)	59(11.7)	87(17.2)	49( 9.7)	15( 3.0)	505(100.0)
플라스틱 양념통류	순위	1	3	5	2	4	6	
	N(%)	159(31.5)	103(20.4)	51(10.1)	118(23.4)	60(11.9)	14( 2.8)	505(100.0)
플라스틱 보관용기류	순위	2	3	4	1	5	6	
	N(%)	128(25.3)	79(15.6)	65(12.9)	141(27.9)	63(12.5)	29( 5.7)	505(100.0)
플라스틱 도마	순위	1	2	5	3	4	6	
	N(%)	158(31.3)	103(20.4)	61(12.1)	90(17.8)	65(12.9)	28( 5.5)	505(100.0)
프라이팬류	순위	1	5	6	2	4	3	
	N(%)	157(31.1)	56(11.1)	45( 8.9)	96(19.0)	59(11.7)	92(18.2)	505(100.0)
유리컵, 유리잔	순위	1	2	5	4	3	6	
	N(%)	160(31.7)	110(21.8)	34( 6.7)	86(17.0)	96(19.0)	19( 3.8)	505(100.0)
유리냄비	순위	1	5	6	2	3	4	
	N(%)	131(25.9)	56(11.1)	43( 8.5)	107(21.2)	103(20.4)	65(12.9)	505(100.0)
유리접시	순위	1	3	5	2	4	6	
	N(%)	130(25.7)	95(18.8)	54(10.7)	96(19.0)	94(18.6)	36( 7.1)	505(100.0)
유리 보관용기류	순위	2	4	5	1	3	6	
	N(%)	120(23.8)	68(13.5)	49( 9.7)	140(27.7)	96(19.0)	32( 6.3)	505(100.0)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주부 505명을 대상으로 합성수지제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 활용도 및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식품용 기구 구매 시 품질표시, 보상관련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중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를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용 기구의 라벨을 보관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 시 주의사항’ 때문으로 나타났다. 라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글자크기’나 ‘외국어 표기 이해도’에 대한 만족정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목별 표시사항 제공 방법의 선호도에서는 플라스틱 보관용기류 및 유리 보관용기류를 제외한 식품용 기구에 대해서는 ‘제품에 연결된 태그’를 가장 선호하였고, 플라스틱 보관용기류 및 유리 보관용기류는 ‘제품의 속지나 띠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내용 요구도에서 플라스틱 바구니류, 플라스틱 물통류, 플라스틱 컵류, 플라스틱 양념통류, 플라스틱 보관용기류의 경우에는 ‘화기접근주의’, ‘전자레인지 사용여부 및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내용 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플라스틱 도

마의 경우에는 ‘사용 전 세척사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프라이팬류의 경우에는 ‘화기접근주의’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유리제의 경우 ‘전자레인지 사용여부 및 주의사항’과 ‘충격주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볼 때, 응답자들은 식품용 기구를 구매할 때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가장 많이 확인하였고, 또한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필요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소비자들이 식품용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시사항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들은 식품용 기구의 라벨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비자교육을 통해 식품용 기구 사용에 앞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내용을 잘 확인하고 숙지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에서도 소비자들이 식품용 기구 종류에 따라 선호하는 표시사항 방법 및 표시내용 요구도를 반영하여 라벨의 표시사항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플라스틱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 소비자 활용도, 소비자 인식도, 라벨

(표 13) 플라스틱 식품용 기구 및 프라이팬류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내용 요구도<sup>1)</sup>

품목	회기 접근주의	진자레인지 사용여부 및 주의사항	사용 전 세척 사항	충격주의	사용 가능 온도	조리용 사용 가능 여부	기름기 많은 음식이 있을 경우 파손 주의사항	주요 주의	산이 강한 식품 저장 주의	술 또는 연마분 사용금지	냉동 시 충격주의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식품 용도 외 사용금지	빈 용기 가열금지	계	
플라스틱	순위 N(%)	1 333(20.7)	2 185(11.5)	3 160(10.0)	4 149(9.3)	5 134(8.3)	6 104(6.5)	7 85(5.3)	8 82(5.1)	9 71(4.4)	10 69(4.3)	11 65(4.0)	12 58(3.6)	13 56(3.5)	14 54(3.4)	1,605(100.0)
플라스틱	순위 N(%)	1 273(15.1)	2 269(14.9)	3 204(11.3)	4 141(7.8)	5 187(10.3)	6 64(3.5)	7 52(2.9)	8 78(4.3)	9 75(4.1)	10 81(4.5)	11 156(8.6)	12 94(5.2)	13 59(3.3)	11 78(4.3)	1,811(100.0)
플라스틱 침류	순위 N(%)	2 253(16.2)	1 264(17.0)	3 155(10.0)	4 137(8.8)	5 155(10.0)	6 74(4.7)	7 39(2.5)	8 75(4.8)	9 53(3.4)	10 63(4.0)	11 93(6.0)	12 83(5.3)	13 52(3.3)	61(3.9)	1,557(100.0)
플라스틱 앞면통류	순위 N(%)	1 263(17.4)	3 148(9.8)	2 174(11.5)	4 126(8.3)	5 101(6.7)	6 69(4.6)	7 79(5.2)	8 64(4.2)	9 134(8.9)	10 62(4.1)	11 93(6.2)	12 69(4.6)	13 84(5.6)	44(2.9)	1,510(100.0)
플라스틱 보관용기류	순위 N(%)	2 238(13.0)	1 300(16.4)	3 189(10.3)	4 149(8.1)	5 163(8.9)	6 95(5.2)	7 84(4.6)	8 67(3.7)	9 90(4.9)	10 72(3.9)	11 138(7.5)	12 101(5.5)	13 74(4.0)	74(4.0)	1,834(100.0)
플라스틱 도마	순위 N(%)	10 79(5.1)	11 72(4.6)	1 205(13.2)	2 117(7.5)	3 156(10.0)	4 125(8.0)	5 131(8.4)	6 93(6.0)	7 66(4.2)	8 200(12.9)	9 31(2.0)	10 83(5.3)	11 63(4.0)	12 135(8.7)	1,556(100.0)
프라이팬류	순위 N(%)	1 220(18.0)	11 51(4.2)	2 216(17.7)	3 99(8.1)	4 63(5.2)	5 58(4.8)	6 60(4.9)	7 111(9.1)	8 51(4.2)	9 107(8.8)	10 20(1.6)	11 74(6.1)	12 63(6.2)	13 26(2.1)	1,219(100.0)

1) 복수응답임.

(표 14)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내용 요구도<sup>1)</sup>

품목	진자레인지 사용여부 및 주의사항	충격주의	사용 가능 온도	오븐, 그릴 등의 사용에 대한 주의	회기 접근주의	사용 전 세척 사항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술 또는 연마분 사용금지	조리용 사용가능 여부	식품 용도 외 사용금지	계		
유리접, 유리잔	순위 N(%)	2 371(19.4)	1 391(20.5)	3 226(11.8)	4 169(8.9)	5 158(8.3)	6 139(7.3)	7 139(7.3)	8 108(5.7)	9 90(4.7)	10 77(4.0)	11 41(2.1)	1,909(100.0)
유리 냄비	순위 N(%)	1 345(17.0)	2 343(16.9)	3 275(13.6)	4 232(11.5)	5 156(7.7)	6 98(4.8)	7 140(6.9)	8 90(4.4)	9 101(5.0)	10 184(9.1)	11 60(3.0)	2,024(100.0)
유리 접시	순위 N(%)	1 374(20.7)	2 348(19.3)	3 187(10.3)	4 195(10.8)	5 146(8.1)	6 118(6.5)	7 131(7.2)	8 104(5.8)	9 81(4.5)	10 85(4.7)	11 38(2.1)	1,807(100.0)
유리 보관 용기류	순위 N(%)	1 380(20.3)	2 336(17.9)	3 214(11.4)	4 200(10.7)	5 144(7.7)	6 120(6.4)	7 147(7.9)	8 100(5.3)	9 87(4.6)	10 95(5.1)	11 49(2.6)	1,872(100.0)

1) 복수응답임.

참 고 문 헌

강화유리 냄비 사용시 주의 필요. (2009, 9. 21). **한국소비자원**. 자료검색일 2009, 10. 1, 자료출처 [http://www.kca.go.kr/front/announcing/per\\_01\\_view.jsp?no=984](http://www.kca.go.kr/front/announcing/per_01_view.jsp?no=98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검색일 2008, 2. 1, 자료출처 <http://www.law.go.kr>

김옥선, 오세인, 장영애. (2005). 시판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실태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21(5), 616-628.

김효정, 김미라. (1997). 수입 농산물의 구입실태 및 원산지 표시제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영남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5), 477-493.

노영화. (2000).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6, 20-33.

노영화. (2004). 유기 가공식품의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노영화, 김인숙. (1999). 식품표시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멜라민 그릇에 뜨거운 물 담아두면 멜라민 성분나와. (2008, 10. 7).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09, 3. 20, 자료출처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13096>

소비자민원으로 본 피해사례. (2008, 7. 9). **파이낸셜 뉴스**. 자료검색일 2009, 3. 20, 자료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921363834&cDateYear=2008&cDateMonth=07&cDateDay=09](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921363834&cDateYear=2008&cDateMonth=07&cDateDay=09)

식품등의표시기준. (2009, 8. 24). **식품나라**. 자료검색일 2009, 10. 1, 자료출처 <http://foodnar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합성수지제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이강자, 이윤희. (2004). 식품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4(1), 54-63.

이경옥, 김영숙. (2007).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761-773.

이경희, 여정성. (1996).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행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35-248.

이정원, 김동순. (2003). 중학생과 학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식품표시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9(3), 185-196.

임현슬, 김향숙. (1997). 중등학교 여교사의 식품표시 이용 실태 및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6(1), 139-141.

장남수. (1997). 서울지역 성인의 식품영양건강 태도와 식품영양표시 활용실태. **한국영양학회지**, 30(3), 360-369.

장순옥. (2000). 영양표시에 대한 주부소비자의 인지, 이용,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3(7), 763-773.

주나미, 윤지영, 김옥선, 고영주, 정현아, 최은영. (2005). 서울, 경남 일부지역의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5), 525-531.

주나미, 윤지영, 김옥선, 박상현, 고영주, 김지연. (2006). 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여성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1(2), 209-215.

접 수 일 : 2009. 12. 03.  
수정완료일 : 2010. 01. 04.  
게재확정일 : 2010. 01. 13.